

부동산 대출은 조이고, 미래산업엔 푼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6년 새해부터 금융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을 벗어나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본격 이동한다. 서민·청년 금융 부담은 낮추는 대신, 자본시장 공시와 대출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통합한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반도체·인공

‘국민성장펀드’·‘BDC’ 도입…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 확대 주담대 규제·자본시장 공시 강화…우체국도 은행업무 가능

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포함돼, 민간자금과 정책금융이 결합한 대형 투자 체계가 가동된다.

반면 부동산 금융에는 제동이 걸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돼, 과도한 주담대 확대를 억제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대출 종류가 아닌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자본시장에는 벤처·혁신기업 투자 전용 상장 공모펀드(BDC)가 새로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도 상장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확대돼, 지방 금융 공급

도 강화된다.

기업 공시와 지배구조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연 2회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까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의 물(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함께 기재되고, 주식기준보상도 현금환산액까지 포함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서민과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촘촘해진다. 상호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실

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실질 기준 5~6%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뀐다. 햇살론은 일반·특례보증으로 통합돼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 선별충전금 미분리 관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제재 체계가 마련되고, 금융권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청년과 고령층을 겨냥한 제도도 눈에 띈

다. 전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돼 노후 자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대리점이 도입된다. 청년층에는 정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돼, 3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 금융제도 개편은 자금은 생산적인 곳으로,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덜 가도록 설계됐다”며 “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 기반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는 30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을 열고, 녹색에너지연구원 1억2000만원, 전남도시가스 2500만원, 해양에너지 25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달됐다.

전남 신재생에너지기업 인재 육성 ‘상생 행보’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 산업 성장의 성과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인재-산업-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30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식을 열고, 녹색에너지연구원 1억2000만원, 전남도시가스 2500만원, 해양에너지 25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백경동 전남도 에너지 정책과장과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전남도시가스·해양에너지 1억7000만원 전달 에너지 산업 성과 지역 환원…인재·산업 선순환 모델 구축 주목

구자성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의 의미를 공유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원천기술과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해상풍력 대규모 단지 조성,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전남도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기관이다.

이번 장학금 역시 전남·경기 지역상생 나눔 태양광발전소 수익금 일부를 환원한 것으로, 연구원은 2018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7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남도시가스는 순천·광양 등 6개 시군 19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공급배관 확충과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금 누적 기탁액은 7억5000만원에 달한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10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지속적인 배관 투자와 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2014년 이후 장학금 누적 기탁액은 4억8000만원이며, 도내 대학 발전기금 조성,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함께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이 인재 성장과 지역 상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삼성전자 장중 ‘12만전자’

삼성전자 주가가 30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전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66만원에 바짝 다가서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0.33% 오른 1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12만1200원까지 올라 사상 처음 12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날 SK하이닉스도 1.72% 오른 6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65만90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41%)가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반도체 장비의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미국 정부가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진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정현아 기자 aura@

전남 철강산업, 범용재 한계…“저탄소·고부가 전략 시급”

전남연구원, K-스틸법 제정 계기 구조 재편 필요성 제기 광양만권 에너지·신산업 연계 녹색철강 전환 과제 부상

전남 철강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탄소 규제 강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용재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전략제품과 저탄소 공정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30일 발간한 ‘JNI 이슈리포트-전남 철강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건 진단과 과제’를 통해 전남 철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전략제품 중심의 생산체계 전환과 저탄소 공정 도입, 제도 기반 강화를 중장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남 철강산업은 2023년 기준 전남 제조업 부가가치의 20.6%, 고용의 19.2%를 차지하는 지역 핵심 기간산업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8%를 담당하며,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원료 조달부터 제련·제강, 가공·물류에 이르는 고밀도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 철강 생산체계의 핵심축이 전남에 집적돼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제개 가능성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 등 글로벌 통상·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범용재 위주의 수출 구조는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전남 철강산업이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상용화를 전제로 한 실증 기반 확충과 산업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전략제품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올해 11월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특수강 소강과 프리미엄 소재 등 고부가 전략제품군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부터 시험·실증, 양산,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지역 단위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전환 역시 전남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혔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고도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저탄소 공정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해상풍력과 HVDC, 수소 실증 등 광양만권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녹색철강 전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도적 대응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12월 16일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통해 녹색철강특구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례, 투자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한전, AI 활용 ‘감사 고도화’ 협력

감사기법 공유·교차 감사·부패예방 역량강화 등

광주시와 한국전력은 30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감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정영상 한전 상임감사는 양 기관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과 감사 성과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감사 정보 교류 및 교차 감사 △인공지능 등 정보(IT)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 공유 △내부통제 및 부패 예방 역량 강화 △정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이다.

이번 협약은 나주 혁신도시에 정착한 한전과 지자체가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감사 혁신을 위한 실질적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광주시와 한전은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의 지자체-공기업 간 감사업무 협력



광주시와 한국전력은 30일 나주 본사에서 ‘감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례를 낳았다”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더욱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감사의 전문성과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솔라시도’ 경력직 공채

BS그룹 계열사이자 솔라시도 개발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 조성을 주도할 경력직 인재 공개채용에 나섰다.

이번 채용은 본격 궤도에 오른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뒷받침할 실무형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광·부동산 복합개발 전반에서 현장 경험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집은 전 분야 경력직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개발 △토지판매 △투자유치·홍보 △주택개발 등 직무별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각 분야에서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를 우대한다.

전형은 서류전형과 1·2차 면접, 채용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무 역량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지원은 사람인·잡코리아·캐치 등 주요 채용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16일이다. 직무별 세부 자격요건과 일정은 각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